

마을에서 배우고 마을과 나눈다

도교육청, 오늘 전주교대서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계획 설명회 개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늘 전주교대 교육문화관(김서종홀)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방과후 마을학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방과후 마을학교 참여단체 담당자, 담당 장학사, 운영실무사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9 방과후 마을학교'와 '겨울방학 중 돌봄형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각 교육지원청은 12월~1월 중 공모를 거쳐 2019년 방과후 마을학

교'를 선정·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시설공사나 석면공사로 인해 겨울방학 중 돌봄이 이뤄지지 않는 학교나 돌봄교실이 부족한 신설학교 주변의 아파트 공동체나 지역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30여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겨울방학 중 방과후 마을학교'를 오는 14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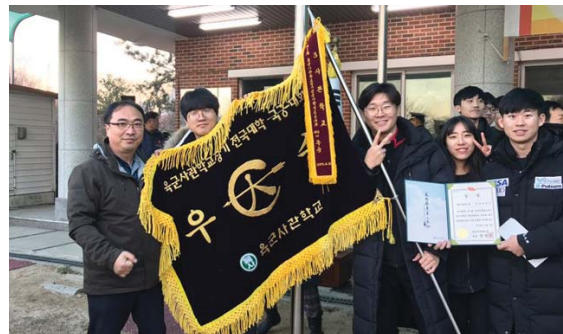
방과후 마을학교란 방과후 활동을

학교 밖인 마을에서 지역 강사들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삶을 나누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작되어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며 2018년에는 200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설명회와 함께 조창숙(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대표)·이대건(책마을해리 대표)이 각각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활동',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잘 사는 법' 특강을 진행하고, 전주 어울림작은도서관·사

랑방교육문화복지공동체, 익산 즐거운교육협동조합·예술융합마을연구소 등 4개 기관 마을운영자의 운영 사례 나눔이 이어지는 이번 설명회는 방과후 마을학교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질적 성장을 제고하게 될 것이며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마을학교를 통해 지역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할 것"이며 "방과후 마을학교 내실화를 다지고 배움과 삶이 하나 되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레지덴셜칼리지 동아리 학생들이 최근 열린 제4회 육군사관학교장기 대학생 국공대회에서 단체 우승을 차지했다.

RC 체험으로 배운 국공, 대회 우승까지

일과 후 틈틈이 연습... 국공 통해 인성 키워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모험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레지덴셜칼리지(이하 RC) 체험 프로그램 일환으로 국공을 배우고 있는 동아리 학생들이 최근 열린 제4회 육군사관학교장기 대학생 국공대회에서 단체 우승을 차지했다.

레지덴셜칼리지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방과 후에는 기숙사에서 영역별로 다양한 비교과과목들을 듣거나 체험하게 하는 전북대만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전국 30개 대학에서 202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 전북대는 RC스포츠 플로어 축구 동아리가 연합해 경기에 출전했다.

학업 중 틈틈이 배운 것을 대회에서 펼쳐보자는 마음으로 출전한 전북대 RC 학생들은 단체 정규사(145m) 부문에서 이 한·윤경민·허동권 학생이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남자부 개인전 정규사 부문에서도 허동권 학생이 2위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이 한 학생(분자생물학과)은 "RC 스포츠포로어 활동을 통해 처음 국공을 알게 됐고, 예부터 우리 조상들의 교육에도 빠지지 않던 공술에 흥미를 느껴 시작하게 됐다"며 "꾸준하게 국공 활동을 수련해 좋은 결과가 있어 기쁘고, 앞으로 후배들도 국공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소 혈통·정보 한 눈에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정보 수집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단장 이학고·이하 사업단)이 IT 전문기업인 ㈜나우리와 함께 한우 유전능력 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소 개체의 바코드(개체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혈통에서부터 도축, 번식 정보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적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회 이상 검색된 개체 정보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수집해 한우 개량에 필요한 빅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다.

또한 교배 정보와 분만 정보는 신규 개량형질(번식)을 발굴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암소 개량 사업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장은 "이번 프로그램 개발은 연구기관과 전북 한우 농가들이 소통하고 협력했기에 성공적으로 이뤄진 성과"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현장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량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 만성·효천지구 학생 통학불편 해소

전주교육지원청-개발시행사 통학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주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학생들에게 통학차량이 지원된다.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전주덕진중학교, 만성지구 공동주택 개발시행사인 골드클래스(주), 제일건설(주), 중흥토건,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티건설, 전북개발공사와 만성지구·효천지구 공동주택 개발시행사인 ㈜유미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효천지구에 입주예정 초등학생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만성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초등학교(가칭 양현초 2019년 3월 개교예정) 및 중학교(가칭 만성중 2020년 3월 개교예정) 개교시기 불일치에 따라 유입 학생들을 개교 전까지 초등학생의 경우 전주홍산초등학교, 중학생의 경우 4학군내 중학교 등으로 분산 배치하고, 효천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초등학교(가칭 효천초 2020년 3월 개교예정) 개교



지난 4일 효천지구 공동주택 개발시행사인 유미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효천지구에 입주예정 초등학생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기 불일치에 따라 유입 학생들을 개교 전까지 전주홍산초등학교에 분산 배치하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통학차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 및 관리하며, 만성·효천지구 공동주택 개발시행사는 통학차량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

기로 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미 예곡시티 개발시행사들과도 초·중학생 통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엔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업무협약이 추가로 체결됨에 따라 전주개발지구 학교설립 지연에 따른 초·중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GTEP사업단, 지역 업체 수출 판로 개척 '앞장'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양사업단(이하 GTEP사업단·단장 무역학과 김민호 교수) 소속 임하영·최은경 학생은 최근 중국 광저우 수출입교역회(캔톤페어)에 참가해 전주 소재 ㈜다인스의 손톱마용기 110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또한 김경현·조진영 학생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미네랄바이오텍이 생산하는 칼슘음료 8만 달러, 김한나·석수진 요원은 진안군 소재 피지엔(주)의 홍삼제품 및 천연비누 26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 학생들이 이번 전시회에서 상담한 외국 바이어 수는 148명에서 상담 그 중 34명은 향후 계약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력 바이어들로 알려져 상

담 실적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열린 '싱가포르 한류박람회'에 참가한 김하영·최지원·한진우·최현경 등 4명의 학생들도 전주시 소재 차한음식(주)이 생산하는 아발람 등 편의식품을 수출하여 18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GTEP 사업단 학생들은 이러한 해외 전시회 상담결과를 토대로 협력업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출 오퍼까지 진행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올해 말

까지 선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충원 명예교수는 "사업단 학생들이 해외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면서 바이어들을 만나 상담을 하는 것은 신규 바이어 발굴 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사업단을 통해 학생들이 수출 지원을 위한 집중 교육과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에 더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민·관 소통과 협력으로 청정전북교육 구현

오늘 군산서 시민감사관 워크숍

전북교육청이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군산 베스트웨스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전북교육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 9월 위촉된 제4기 시민감사관은 변호사·세무사·건축사·기술사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활동중이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감사활동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시민감사관과 감사담당공무원 간 정보교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019년 전북교육계획 설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청

렴시민감사관 감사활동 사례 공유 ▲교양 강좌 '삶의 힘표와 느낌표' ▲2018년 시민감사관 감사결과 토의 ▲제3기 시민감사관 활동 고찰 ▲감사담당공무원 간 정보 교류 등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감사관 감사결과를 나눔으로써 실효성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감사관 활동의 내실화를 통해 교육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감사관은 10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예산집행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돼 시민감사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교육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특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활동을 펼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